

제주도민의 문화생활과 문화의식 실태*

이상철** · 김석준*** · 김준표****

< 차례 >

- I. 서론
- II. 문화 기반시설의 실태
- III. 문화단체의 현황
- IV. 주민의 문화생활 실태
- V. 주민의 문화의식
- VI. 결론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민의 문화의식 및 문화생활 실태를 진단하여 제주도민의 실질적인 문화 향유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주도의 문화 기반시설과 문화예술단체의 현황을 확인하고, 제주도민의 문화 생활 여건·의식·욕구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다음 제주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발전방향을 설정한 후, 이를 뒷받침할 문화정책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은 효과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제주 문화에 대한 연구 경향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다. 둘째, 제주도민의 문화의식, 문화생활 실태, 수혜자로서의 요구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었다. 셋째, 분석을 통해 제주도민의 문화향유 수준을 파악하고 문화예술의 섬 제주로의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이상철·김석준·김준표(2009)의 연구보고서 자료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넷째, 제주 문화의 성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다섯째, 제주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 및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제주도민의 문화생활, 제주도민의 문화의식, 문화기반시설, 문화단체, 문화정책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주도의 문화에 관한 연구 경향은 크게 두 갈래로 이루어져왔다. 하나는 육지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전통문화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제주도에 대한 연구 초기부터 이루어졌다. 다른 하나는 차별적인 전통문화를 기초로 해서 이를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이다. 이 경향은 주로 최근의 것이다.

전통문화에 관한 연구는 전통문화가 어떠한 모습이었나, 그러한 모습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그리고 이 문화를 현재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주로 논의되어왔다. 문화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는 탈근대 시대에 들어와 자연경관 중심의 제주도 관광산업이 일정한 한계에 다다르자 이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육지 여타지역에 비해 제주도 전통문화의 특수성이 강하다보니 이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제주의 의식주 등 문화의 산업화를 시도하게 된 것이 그 배경이다. 최근 문화 콘텐츠에 관한 논의가 급증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제주도의 전통문화에 관한 연구에서 문화의 의미는 총체적인 생활양

식에 관한 것이었다(허남춘, 2007; 현길언, 2001)¹⁾. 그래서 전통문화는 주로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연구되어왔다. 제주는 화산섬으로서 육지와는 격리되어 있는데다 토지가 비옥하지 못해 생산성마저 낮아서 육지와는 차별성이 있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제주인의 의식과 생활이 육지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해녀의 물질, 남녀 성별분업, 농사도구, 주거 및 제사 문화 등에서의 차별성 등이 있다.

이러한 차별성이 1960년대부터의 개발 이후에는 많이 줄어들었다. 격리된 화산섬으로서 환경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교통·통신의 발달로 극복되면서 제주의 문화도 육지와의 동조화 경향이 크게 늘어났다. 문화가 산업화되는 시대에 와서 차별성이 줄어들자 그 상품성이 떨어지는 모순이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전통문화의 차별성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가 중요해졌다. 환경적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을 잇기 위해서건 상품화를 위해서건 어떻게 이를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게 현재의 실정이다. 예컨대 음식문화에서는 갈치회나 고등어회를 내세우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웰빙)시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강조하고 있다. 갈옷을 선전하거나 해녀들의 물질문화나 말(馬)과 관련된 산업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전통문화 자체에 대한 연구나 전통문화의 산업화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왔던 연구경향 탓에, 현재 제주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체인 제주도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연구는 자연히 소홀히 취급되어왔다.²⁾ 그런 점

1) 문화의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는 이 글 1장 2절을 참조할 수 있다.

2) 지금까지 제주에서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조사는 2006년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실시한 「2006제주문화향수실태조사」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조사는 그 선구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여가생활,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 교육만 조사한 한계가 있다.

에서 제주도민의 문화의식 및 문화생활 실태를 알아보려고 하는 이번 연구는 자못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문화는 인간이 환경과의 만남 속에서 생존 및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형성된 총체적 삶의 양식이다. 그러나 문화를 총체적 삶의 양식으로 보는 관점 외에, 단순한 생존수준을 넘어서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수단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두 갈래의 연구경향은 문화를 전자의 관점에서 이해한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으로 새롭게 이해할 때, 그 동안 소홀히 해왔던 제주도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된다. 연구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주도민은 육지에 비해 문화를 향유하기에 불리한 환경적 여건에 처해있다. 결과적으로 실제 삶에 있어서도 문화생활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했었다. 지금은 이러한 문화 연구 경향을 보완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기이다.³⁾

제주도민의 실질적인 문화 향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문화 현황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⁴⁾ 그런데 그동안 한국에서 문화향수실태조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국 조사는 제주도를 표본에서

3) 문화의 의미를 이렇게 한정함으로써 이 연구에서 제외된 부분들은 앞으로의 문화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예컨대 전통문화, 제주문화, 제주사람의 의식구조 등을 들 수 있다.

4) 표제를 '제주인(人)'이 아니라 '제주도민(道民)'으로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제주인과 제주사람이 전통적으로 인정받아온 '토박이'의 의미가 강한 비공식적인 용어라면, 제주도민은 현 시점에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거주도 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준공식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다. 통상 제주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제주도에 입도(入島)한 지 3대는 지나야된다는 게 정설이다. 이번 연구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되, 때때로 문맥에 따라 '주민'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것이다. 주민은 '거주자'라는 의미이다.

제외하고 실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그러므로 제외된 제주를 대상으로 합은 제주도 부분을 보완하거나 육지와 제주의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문화(文化, culture)의 어원은 라틴어 동사인 colere와 그 명사인 cultura이다. 이 라틴어는 경작 · 재배하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자연(nature, natura)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자연에 인위적인 무엇을 가미하거나 인위적인 것을 뜻한다. 이것이 그 후 의미가 분화하여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왜냐하면 의미가 역사에 따라 변화하고 사용맥락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의미들은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근대 초기에 정신을 경작한다는 의도에서 정신계발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문화는 주로 정신문화를 뜻하고, 또 정신적으로 계몽된 상태를 의미하였다.

둘째, 문화를 지적 혹은 예술적 활동이나 그 산물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문학 · 미술 · 음악 · 연극 같은 전통적 예술이나, TV 드라마 · 대중음악 · 만화 같은 대중예술 모두 의미를 형성하는 실천으로서 이에 해당한다. 문화산업 또는 문화의 상품화라는 용어는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셋째, 20세기 이후 문화인류학과 사회학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활 양식 또는 삶의 유형을 뜻한다. 지식 · 신앙 · 가치관 · 도덕 · 풍속 · 관습 · 제도 등, 자연에 인위적인 노력을 가하여 변형시키거나 자연에 대비해서 인위적으로 이루어놓은 생활양식과 사고양식을 통틀어 일컫

는다. 즉, 어떤 인간 집단이 공유하는 특정한 생활방식인 바, 모든 집단은 문화를 갖고 있고 그 가치를 차별할 수는 없다. 한국문화·라틴문화권·제주문화·유교문화·청소년문화·전통문화라는 용어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⁵⁾

따라서 문화를 연구할 때는 다양한 의미 중 어떤 점에 중점을 둘 것인지 미리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세 번째 의미를 제외하고, 주로 두 번째 지적·예술적 활동과 연관된 의미로 사용할 것이며 때로는 첫 번째 계몽된 교양의 의미도 포함할 것이다.

문화란 학술적으로는 총체적 삶의 양식이라고 파악된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 외에 일반 상식적으로 문화는 생존수준을 넘어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후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때 문화생활의 향유는 생산력의 발전정도가 낮았던 농업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물론 지배계층은 예외이다. 생존수준을 넘어서는 문화생활의 향유는 지배계층의 몫이었고, 일반 주민들의 문화의식 및 문화생활은 가능하지 않았다.

산업사회에 들어와 상식적인 의미에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문화는 이제 일반 주민들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도 예외는 아니다. 지리적 한계가 극복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생존수준을 넘어서는 문화생활의 향유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주는 육지에 비해 새로운 문화 경향은 늦게 도래·소개되고 있고, 주민을 위

5) '제주문화'는 주로 세 번째 의미에서 사용되어 육지와는 차별성이 있는 제주의 삶의 여건에 따른 고유한 문화 또는 전통적인 문화라는 의미가 강하다. 이런 뉘앙스를 피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이 연구의 본문에서는 '제주 문화'로 표기하였다. 이는 현재 제주에서 정신 또는 교양을 고양시키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한 문화 향유를 진척시키고자 하는 이 연구의 기본 목표에 부합한다.

한 시설은 부족한 채 관광객을 위한 시설 위주로 개발이 되는 등, 불리한 여건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연구의 초점은 제주도민의 문화의식 및 문화생활에 대한 실태를 문화 기반시설 및 문화단체의 현황과 함께 조사하는 것과, 보다 풍요로운 문화생활의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맞춰질 것이다.

3. 연구 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자료 조사, 사회조사와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자료의 조사는 특히 2년에 한번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참조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향수에 대한 실태조사가 수차례 진행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늘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기회에 제주도민의 문화생활 실태가 전국규모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사회조사에서도 설문지 구성단계에서 <2006년 문화향수실태조사보고서>를 참고하였다. 분석단계에서 <2008년 문화향수실태조사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실제 비교는 2008년도의 조사결과를 두고 분석하였다. 심층면접 조사는 문화단체에서 일하는 관계자와 제주도정의 문화담당자 그리고 문화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조사 표본의 수는 모집단에 비추어 99%의 신뢰도 수준을 유지하는 크기로 설정하였다. 모집단의 수는 제주도민 20세 이상 성인남녀로 416,724명이었다. 표본 수는 모집단의 지역별분포에 따라 할당하여 제주도 동지역에서 275명, 제주도 읍면지역에서 85명, 서귀포시 동지역에

서 75명, 서귀포시 읍면지역에서 65명을 표집하였다. 사회조사는 2009년 9, 10월 조사원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로 시행하였다.

문헌자료에 대한 분석은 본 조사의 내용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조사는 녹취록을 통해 분석하였다. 사회조사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과 Excel 200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 문화 기반시설의 실태

1. 문화 기반시설의 현황

문화 기반시설은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물질적인 기초이다. 대표적으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영화관, 문화의집·문화학교, 지방문화원 등의 시설을 들 수 있다.

제주도의 문화 기반시설을 총괄하면(<표 1> 참조),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공도서관은 24개소, 박물관과 미술관은 48개소, 기타 문화시설이 231개소, 총 303개소가 있다.

〈표 1〉 문화 기반시설 총괄표

구분	내역	관수	비고
공공도서관	지자체	15	제주시 7, 서귀포시 8
	교육청	6	제주시 3, 서귀포시 3
	사립	1	서귀포시 1
	특수	2	점자 2
	계	24	

박물관 미술관	국립박물관		1	제주시 1
	등록 박물관	박물관	23	제주시 11, 서귀포시 12
		미술관	9	제주시 6, 서귀포시 3
		전시관	9	제주시 3, 서귀포시 6
		자료관	1	서귀포시 1
		식물원	5	제주시 3, 서귀포시 2
		소계	47	
	계		48	
기타 문화시설	공연시설		24	공연장 17, 영화관 7
	문예회관		1	제주시 1
	문화의집		21	제주시 10, 서귀포시 11
	문화원		3	도지회 1, 문화원 2
	문화학교		14	제주시 8, 서귀포시 6
	문고		168	제주시 99, 서귀포시 69
	계		231	
총계		303		

제주도, 『문화·관광·교통·스포츠 현황』, 2009, 13쪽.

문화 기반시설들은 1960년대까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경제개발과 함께 양적으로 계속 성장해 왔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문화시설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문화정책을 시행하여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단체장은 업적을 과시할 수 있어 이를 적극 추진한다. 1998년 정부의 ‘새문화정책’에 의한 국립박물관·미술관 등의 건립 지원 사업이 이에 일조하고 있다. 거기에다 경관 위주 관광에서 문화관광으로 관광의 방향이 확대되는 1990년대부터는 사립 시설이 그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⁶⁾ 현재 인구수

6) 제주도, 『제주도지』, 제6권 문화·예술, 제주도, 2006와 제주도, 『통계연보』, 각년도 참조

대비로 볼 때 제주의 시설 수는 전국 평균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질적 발전이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관광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영리 위주의 사립시설은 규모가 영세하고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상당하다. 국공립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이 많고 번듯하지만 내용이 부실하고, 주로 행정전문가가 시설을 관장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채 운영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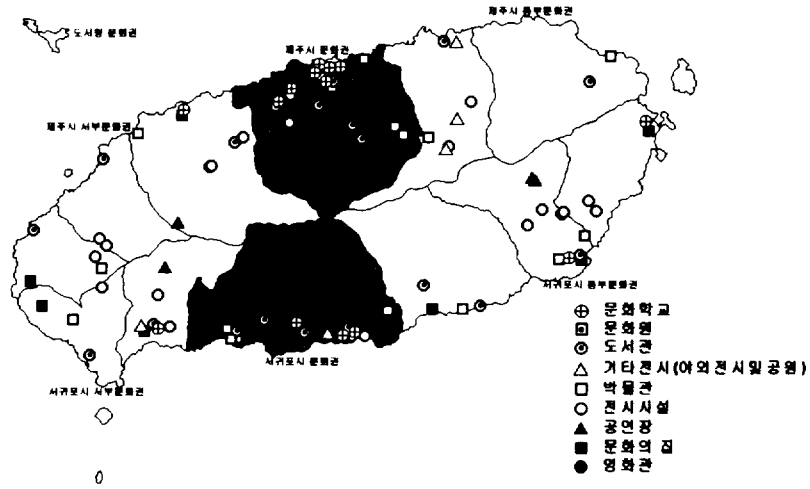
2. 문화기반시설의 분포와 접근성

<그림 1>은 각종 문화 기반시설들을 총괄한 분포도이다.⁷⁾ 그림을 보면 옛 제주시와 옛 서귀포시 지역에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신·구 시가지에 더욱 집중되어 있다. 특히 비중이 높은 국공립 기반시설들은 옛 제주시 시내에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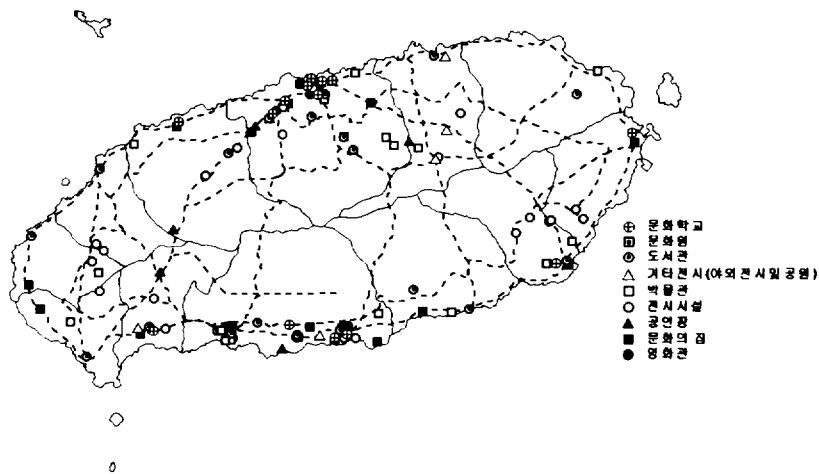
옛 시지역 외에는 현재 서귀포시의 동서부 지역에 시설이 많은 편이다. 이에 비해 현 제주시의 동부 지역에는 기반시설이 극히 취약하다.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

<그림 2>는 도내 주요도로와 문화 기반시설의 분포 및 그 접근성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시설들은 주요도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광객을 위한 영리시설은 중심 시가지를 벗어난 교외지역에까지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주요도로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

7) <그림 1, 2>는 제주도,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 보완용역』, 2009의 제2편 제3장의 것들을 인용하였다.



〈그림 1〉 문화 기반시설들의 분포



〈그림 2〉 주요도로와 문화 기반시설의 분포 및 접근성 관계
(점선은 주요도로를 나타냄)

Ⅲ. 문화단체의 현황

1. 문화단체의 유형과 구성

문화단체에 대한 정의는 논의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적 분류와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문화단체란 문화예술부문에 서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조직들을 말한다.

문화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주도하여 조직된 단체도 있고, 시민단체처럼 민간의 자원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 유형도 존재한다. 전자의 예로는 재단법인인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이하 도립예술단) 등이 대표적이고, 후자의 사례로는 사단법인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예총제주도연합회)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이하 민예총제주도지회) 등을 들 수 있다. 후자에는 비법인 형태의 개별 단체들이 상당수 속해 있기도 하다.

문화단체들을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규모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예컨대 예총제주도연합회나 민예총제주도지회 등은 이른바 문화단체들의 연합조직(federation of organizations)이다. 예총제주도연합회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제주도지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지부 등등의 대표가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는 연합체이고, 민예총제주도지회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제주도지회, 놀이패 한라산 등등의 단체들이 각 분야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형식으로 연합되어 있다. 정책적 자료에서는 이들을 총괄단체라 명명하기도 한다. 그 외 다른 단체들은 그러한 지역연합체에 참여하지 않은 독자적 개별적 조직이거나 다른 형태로 동일 분야의 전국조직에 단체 회원 등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도내 문화단체는 2008년 말 기준으로 총괄단체가 3개이고, 개별단체는 253개이며, 회원은 총 11,998명이다(<표 2> 참조).

<표 2> 문화단체 현황

분야	계	법인단체	비법인단체	회원 수(명)
계	253	49	204	11,998
총괄단체	3	3	0	1,974
문학	23	4	19	1,042
미술	33	3	30	901
사진	30	4	26	695
서예	28	10	18	1,524
건축	1	1	0	30
음악	76	7	69	2,575
무용	14	3	11	273
연극	15	1	14	465
연예	1	1	0	126
국악	16	2	14	753
영화	3	2	1	387
문화	10	8	2	1,253

제주문화예술재단(2009)에서 재구성.

문화단체를 성원권 또는 성원자격요건(membership)의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일부 단체들은 이른바 전문직 결사체(professional association)와 같은 성원자격을 요구한다. 미술, 음악 등 대학의 특정 분야 졸업자라든지 해당 분야에서 직업적으로 몇 년간 활동한 사람이라든지, 해당 분야의 수상경력이나 시, 소설 등의 등단 등등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단체들은 순수한 자원적 결사체처럼 성원자격을 개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듯하다. 각종 문화예술 영역에서 활동하는

비전문적 시민들의 취미단체 또는 동호회 수준의 단체들이 이에 속한다.

2. 문화단체의 운영 실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뢰로 수행한 「제주향토문화 예술진흥 중장기계획 보완용역」보고서(2009: 39-40)를 보면, 2003년도와 2008년도 문화단체 현황은 그리 큰 변화가 없다(<표 3> 참조).

<표 3> 문화단체의 양적 변화(2003-2008)

분야	계		법인단체		비법인단체	
	2003	2008	2003	2008	2003	2008
계	216	253	48	49	168	204
총괄단체	3	3	3	3	0	0
문학	22	23	4	4	18	19
미술	35	33	4	3	32	30
사진	28	30	3	4	25	26
서예	25	28	8	10	17	18
건축	1	1	1	1	0	0
음악	39	76	5	7	34	69
무용	10	14	2	3	8	11
연극	13	15	1	1	12	14
연예	1	1	1	1	0	0
국악	4	16	2	2	2	14
영화	4	3	1	2	3	1
민속*	15	-	1	-	14	-
문학	15	10	12	8	3	2

* 민속분야는 2008년도 통계에서 국악분야로 통합됨.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09: 39)에서 재구성

특이한 사항은 음악관련 단체의 수가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2003년도

에 39개 단체였던 것이 2008년에 76개 단체로 확대된다. 무용분야의 단체도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 10개 단체에서 14개 단체로 늘어난다. 전체적으로 동일 기간에 총 216개 단체에서 253개 단체로 양적 증가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음악과 무용 분야의 기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음악 분야 단체의 수가 증가한 데에는 도내 대학에 음악관련 학과가 증설된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보아진다.

위의 보고서에 나타난 문화단체들의 분포로 볼 때 정책적 지원이 특정 장르에 편중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도내 문화단체들의 재정이 열악한 점이 주목된다. 대부분 개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만, 단체에 따라서는 국비, 지방비 등의 행사지원금과 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재정적 취약에도 불구하고 도내 문화단체들은 나름대로 분야별로 여러 활동을 해내고 있다. 대표적인 총괄단체 중 하나인 예총제주도연합회의 활동은 지역 내에서는 비교적 굵직한 문화예술행사로 채워져 있다. 2009년도 행사만 보더라도 5월에 행해진 제주 아트 페스티벌이라든지,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매주 금·토요일에 이어진 산지천 예술마당, 그리고 제 35회 제주미술대전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가 해당 단체활동에서 거의 대부분을 이룬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때문에 이들 민간의 단체들을 통한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단체들의 문화예술활동과 행사가 자체적으로 기획 집행되고 자생력 있게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IV. 주민의 문화생활 실태

1. 여가활용 실태

여가시간은 경제활동, 가사노동, 그리고 수면·식사·출퇴근 시간 등을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 제주도민의 평일 여가시간은 평균 4.29시간이었고, 휴일 여가시간은 평균 6.22시간이었다(<표 4> 참조). 여가시간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월평균 17.3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민들은 주로 쉬거나 TV보기, 산책·스포츠활동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표 4> 제주도민의 평균 여가시간 및 지출비용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일 평균 여가시간	500	0	16	4.29	2.478
휴일 평균 여가시간	500	1	20	6.22	3.142
여가시간 지출액 월평균	499	0	80	17.34	14.971

2. 시설이용 실태

지난 1년 동안(2008. 9. 1~2009. 8. 31)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영화관, 문화의 집, 복지회관, 청소년수련장(회관), 지방문화원(문화회관), 사설문화센터(대형마트, 신문사 등)의 10개 문화기반시설의 부문별 이용률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률이 같은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제주가 육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 문화시설 단순방문 연간이용률 및 평균 이용회수 (제주·육지)⁸⁾

문화기반시설	제주		육지	
	이용률(%)	평균방문회수	이용률(%)	평균방문회수
도서관	26.6	5.52	16.2	1.88
박물관	20.8	0.58	12.1	0.24
미술관	17.2	0.50	11.5	0.29
공연장	27.0	0.75		
영화관	47.8	3.43		
문화의집	6.2	0.25		
복지회관	12.6	1.58	7.7	0.56
청소년수련원	4.4	0.09	4.4	0.28
지방문화원	11.8	0.32	2.1	0.07
사설문화센터	14.2	1.93	5.5	5.5

3. 문화활동 실태

문화활동의 실태는 문화예술 관람 실태와 창작활동 실태 그리고 지역 축제에 대한 참가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관람에 대한 실태를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원예전시회, 클래식 음악회 및 오페라, 대중가요 콘서트 및 연예 공연, 전통예술, 연극 및 뮤지컬, 무용, 극장 영화 등 9개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문학행사에는 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등이 포함되어 있고, 미술전시회에는 사진, 서예, 서각, 건축, 디자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예전시

8) 제주의 경우는 2008. 9. 1~2009. 8. 31. 의 기간 동안 이용한 경험을 나타낸 것이고, 육지의 경우는 2007. 3. 1~2008. 2. 29. 의 기간 동안 이용한 경험을 나타낸 것이다. 이하에서 나타나는 육지와 제주의 비교에서도 이러한 비교시점의 차이가 전제된다.

회에는 난, 수석, 야생화 등의 전시회가, 전통예술에는 국악이나 민속놀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부문에 대한 관람횟수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본전체의 평균관람횟수는 극장영화(3.06)를 제외하면 1회 미만이었으며, 1회 이상 관람자의 평균관람횟수는 극장영화가 6.48, 미술전시회가 2.73, 문학 2.31, 원예전시회 2.31, 전통예술 2.09, 클래식음악회/오페라 2.02, 무용 1.85, 연극/뮤지컬 1.79, 대중가요콘서트 연예(엔터테인먼트) 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문화예술 평균관람 횟수

문화 예술 행사	표본 전체	평균	관람자수	관람률(%)	평균
문학행사	500	0.22	48	9.6	2.31
미술전시회	500	0.49	90	18.0	2.73
원예전시회	500	0.17	36	7.2	2.31
클래식음악회/오페라	500	0.18	45	9.0	2.02
대중가요콘서트 연예(엔터테인먼트)	500	0.31	90	18	1.70
전통예술	500	0.15	35	7.0	2.09
연극뮤지컬	500	0.26	72	14.4	1.79
무용	500	0.07	20	4.0	1.85
극장영화	500	3.06	236	47.2	6.48

2) 문화예술 창작활동

문화예술 창작활동 실태 역시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와 같은 9개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각 부문에 대한 창작활동 경험유무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문화예술활동 창작경험이 가장 많았던 부문은 미술전시회로 3.8%였

고, 문학행사와 연극/뮤지컬이 각각 2.6%, 2.2%로 그 뒤를 이었다. 대중
 가요콘서트/연예와 영화 부문도 각각 1.6%로 나타났다.

〈표 7〉 문화예술 창작활동 경험(빈도, 괄호 안은 %)

문화예술 창작활동 경험	창작 및 발표 경험		응답자 수
	있다(%)	없다(%)	
문학 행사(시화전, 도서전시, 작가와의 대화)	13(2.6)	485(97.4)	498
미술 전시회(사진, 서예, 서각, 건축, 디자인)	19(3.8)	479(96.2)	498
원예 전시회(난, 수석, 야생화)	4(0.8)	494(99.2)	498
클래식 음악회, 오페라	4(0.8)	494(99.2)	498
대중가요 콘서트/연예(엔터테인먼트)	8(1.6)	490(98.4)	498
전통예술(국악, 민속놀이)	4(0.8)	494(99.2)	498
연극/뮤지컬	11(2.2)	487(97.8)	498
무용	4(0.8)	494(99.2)	498
극장 영화	8(1.6)	490(98.4)	498

3) 참여활동—동호회, 인터넷, 축제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은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8〉 문화예술 동호회활동

문화예술동호회 활동	동호회 활동 비율(%)
문학행사	5.2
미술전시회	7.2
원예전시회	2.0
클래식음악회 오페라	2.8
대중가요콘서트 연예(엔터테인먼트)	4.2
전통예술	2.0
연극 뮤지컬	2.8
무용	1.4
극장영화	6.2
역사문화	3.4

동호회활동 참여정도는 모든 부문의 동호회활동에서 일년에 1-2회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월 2회 이상 참여하는 동호회활동은 문학, 미술, 원예, 대중가요/연예, 전통예술, 영화부분 등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관련 인터넷이용경험은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9> 문화예술관련 인터넷이용경험

문화예술인터넷사이트	인터넷 이용경험 비율(%)
문학행사	8.2
미술전시회	10.6
원예전시회	4.6
클래식음악회 오페라	7.2
대중가요콘서트 연예(엔터테인먼트)	25.2
전통예술	2.4
연극 뮤지컬	12.4
무용	2.4
극장영화	37.4
역사문화	6.4

지역축제에 대한 참가경험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50.6%로 나타났다. 육지의 48.7%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⁹⁾.

<표 10> 지역축제 참가경험

지역축제 참가경험	참가율(%)
제주	50.6
육지	48.7

9) 익명의 논평자에 따르면, 제주에서 열리는 지역축제가 5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제주의 지역축제 참여율이 육지보다 높은 것은 그 만큼 지역축제의 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V. 주민의 문화의식

1. 문화시설 만족도 및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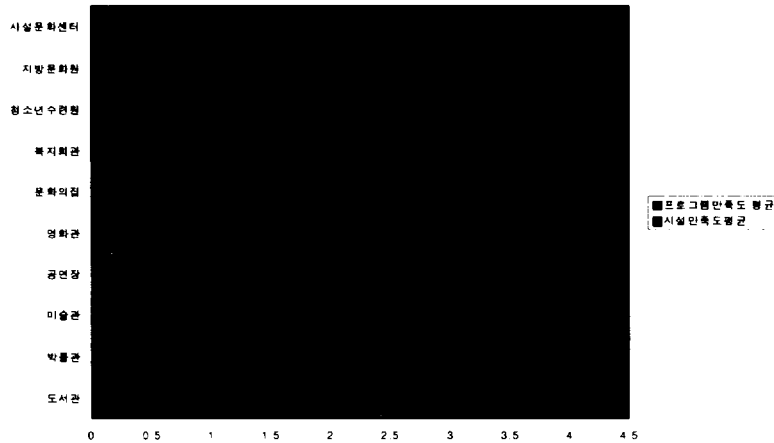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문화기반시설 시설만족도(%)

문화기반시설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도서관	7.6	38.9	42.7	7.6	3.1	100.0
박물관	20.0	37.0	31.0	9.0	3.0	100.0
미술관	18.6	33.7	38.4	7.0	2.3	100.0
공연장	16.7	31.9	39.9	10.9	0.7	100.0
영화관	20.7	46.7	29.3	2.5	0.8	100.0
문화의집	16.7	25.0	38.9	13.9	5.6	100.0
복지회관	24.7	28.8	30.1	9.6	6.8	100.0
청소년수련원	19.2	19.2	38.5	15.4	7.7	100.0
지방문화원	15.0	30.0	35.0	16.7	3.3	100.0
사설문화회관	24.7	30.1	41.1	2.7	1.4	100.0

문화기반시설의 시설 자체에 대해 매우 만족하다는 응답은 복지회관과 사설문화회관이 각각 24.7%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만족도와 다르게 나타났다.

도서관, 미술관,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사설문화센터는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았고, 공연장, 영화관, 복지회관, 지방문화원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시설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았다. 박물관의 경우에는 시설 만족도와 프로그램 만족도가 같았다.



〈그림 3〉 문화기반시설 시설만족도와 프로그램만족도(5점 척도) 평균값

문화시설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 중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공연관람이 45.2%로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났고, 영화관람이 28.2%로 그 뒤를 이었다. 교양강좌 수강이 11.2%였고, 미술전시회가 4.2%, 문학강좌 수강이 2.4%, 창작프로그램 참여와 전시회출품 및 연주 공연이 각각 2.2%였다. 기타사항으로는 스포츠 활동이나 요가 등 건강 관련 항목들과 노래강좌 등이 있었다.

〈표 12〉 문화기반시설 참여희망 프로그램

희망 프로그램	빈도	퍼센트(%)
미술전시회 관람	21	4.2
영화관람	141	28.2
공연관람	226	45.2
문학강좌수강	12	2.4
교양강좌수강	56	11.2

창작프로그램참여	11	2.2
전시회출품 연주 공연	11	2.2
기타	20	4.0
응답계	498	99.6
무응답	2	0.4
계	500	100.0

2. 문화활동 만족도 및 욕구

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욕구에 대한 조사도 문화활동 실태에 대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관람, 창작 및 발표, 지역축제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였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문학행사, 원예전시회,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에 대한 관람 만족도는 보통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 42.0%, 31.4%, 36.1%, 36.1%로 나타났다. 미술전시회, 극장영화에 대한 관람만족도는 조금만족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 37.8%, 43.6%로 나타났다. 대중가요 콘서트/연예 행사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과 조금만족이 36.3%로 같았으며, 무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과 보통이 31.8%로 같았다.

〈표 13〉 문화예술행사 관람 만족도

문화예술행사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문학행사	20.0	26.0	42.0	10.0	2.0	100.0
미술전시회	18.9	37.8	35.6	5.6	2.2	100.0
원예전시회	22.9	28.6	31.4	14.3	2.9	100.0
클래식음악회, 오페라	37.0	32.6	23.9	4.3	2.2	100.0
대중가요콘서트 연예	36.3	36.3	20.9	4.4	2.2	100.0
전통예술	22.2	25.0	36.1	11.1	5.6	100.0
연극 뮤지컬	22.2	25.0	36.1	11.1	5.6	100.0
무용	31.8	18.2	31.8	13.6	4.5	100.0
극장영화	31.3	43.6	22.0	2.2	0.9	100.0

문화예술행사 관람자들이 문화예술행사에 대해 보완점으로 지적하는 요구사항을 행사의 질, 관람비용, 개최횟수, 근접거리, 관련정보, 대중성 등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문화예술행사 관람자 요구사항

문화예술행사	행사의 질	관람 비용	개최 횟수	근접 거리	관련 정보	대중성
문학행사	23.9	15.2	23.9	15.2	15.2	6.5
미술전시회	22.5	11.2	19.1	7.9	20.2	16.9
원예전시회	15.6	18.8	18.8	15.6	21.9	9.4
클래식음악회, 오페라	13.2	31.6	23.7	15.8	5.3	10.5
대중가요콘서트 연예	8.3	51.2	14.3	15.5	2.4	7.1
전통예술	28.1	28.1	15.6	12.5	3.1	12.5
연극 뮤지컬	12.3	38.5	29.2	9.2	4.6	4.6
무용	30.0	30.0	10.0	15.0	10.0	5.0
극장영화	11.5	68.3	7.2	4.8	1.0	4.3

행사의 질이 보완되기를 요구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무용, 전통예술, 문학행사 등이 높았으며, 관람비용이 저렴해지기를 요구하는 문화예술행사는 극장 영화, 대중가요콘서트/연예, 연극/뮤지컬, 클래식음악회/오페라, 무용 등이 높게 나타났다.

2) 창작 및 발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 욕구를 나타내는 창작 및 발표의 의향은 모두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술전시회에 대한 창작 및 발표 욕구가 9.5%로 가장 높았다(<표 15> 참조). 창작 및 발표 의향을 실제의 경험률과 비교해보면, 연극/뮤지컬(39%), 미술전시회(37%), 문학행사(34%) 순으로 창작 및 발표의 욕구가 창작 및 발표의 경험으로 잘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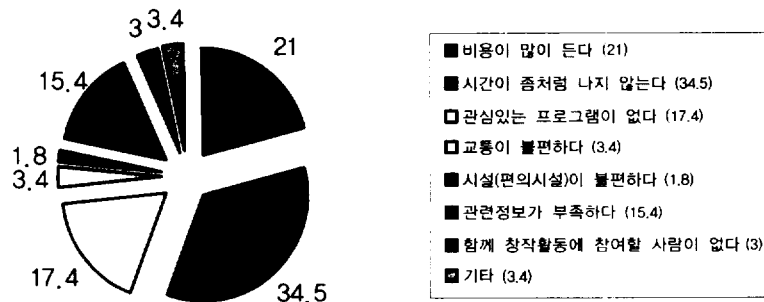
<표 15> 문화예술 행사 창작 및 발표 의향비율(%)과 경험률(%)

문화예술행사	창작 및 발표 의향(%)	창작 및 발표 경험률(%)
문학행사	7.6	2.6
미술전시회	9.5	3.6
원예전시회	4.8	0.8
클래식음악회 오페라	4.6	0.8
대중가요콘서트 연예(엔터테인먼트)	5.8	1.6
전통예술	4.2	0.8
연극 뮤지컬	5.6	2.2
무용	2.8	0.8
극장영화	5.2	1.6

창작활동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관람자나 창작 및 발표 경험자를 비롯한 모든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로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비용의 문제가 21.0%로 그 뒤를 이었다.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17.4%였고,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15.4%였다. 교통 및 시설의 불편 문제는 각각 3.4%, 1.8%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의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관련하여 시설 건립의 문제보다 활동비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4〉 창작활동의 어려움(%)

3) 지역축제

지역축제참가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축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4.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39.5%는 보통이고, 16.2%는 만족하지 않았다.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표 16>을 통해 보완해야 할 요구사항으로 살펴보면, 참여욕구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6〉 지역축제 보완점(요구사항)

지역축제 보완점	제주 (%)	육지 (%)
지나친 상업성에서 벗어나야	32.8	42.7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야	20.6	19.8
홍보가 많이 되어야	10.7	14
편의시설을 늘려야	9.1	11.9
교통불편이 해소되어야	9.1	7.7
주민참여가 많아져야	14.2	3.9
기타	3.6	0.1
전체	100.0	100.0

제주와 육지 모두에서 지나친 상업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가 제주 32.8%, 육지 42.7%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주 20.6%, 육지 19.8%로 다음을 이었다. 그러나 주민 참여가 많아져야 한다는 요구는 제주가 14.2%로 육지의 3.9%에 비해 네 배 정도 많았다. 그만큼 지역축제에 대한 제주도민의 참여요구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VI. 결론: 요약 및 제언

1. 현황

1) 문화 기반시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문화시설의 설립은 증가하여 지난 10년 동안 양적인 성장이 지속되었다.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문화정책을 시행하여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왔다. 현재 인구수 대비로 볼

때 제주의 시설 수는 전국 평균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물론 문화 수요라는 것이 인구수에 따라 크고 작음을 짚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 성장이라는 측면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양적 성장에 따른 성장 자체의 문제점도 없지 않다. 관광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영리 위주의 사립시설은 규모가 영세하고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상당하다. 국공립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이 많고 번듯하지만 내용이 부실하고, 주로 행정전문가가 시설을 관장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채 운영되는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 분포에서도 문제점이 눈에 띄었다. 옛 제주시와 옛 서귀포시 지역에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었고, 특히 비중이 높은 국공립 기반시설들은 옛 제주시 시내에 집중되어 있다. 옛 시지역 외에는 현재 서귀포시의 동서부 지역에 시설이 많은 편이다. 이에 비해 현 제주시의 동부 지역에는 기반시설이 극히 취약하다.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

공공도서관은 성장을 거듭하여 도서관 수나 보유 장서가 증가하였고 인구 수 대비로는 전국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지만, 장서가 분야별로 골고루 갖춰지지 않아 인구 수 대비로는 높은 수준이라는 통계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사서의 수가 부족하여 운영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법적 규정에 따른 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을 위한 접근성이 부족하여 질적 발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부지 선정에서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잘 되는 곳을 택할 필요가 있다. 교통 요충지에는 가용 부지가 적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대중교통 수단으로부터 먼 곳에 부지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로서는 최근 개관한 한라도서관을 들 수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자가용이나 전세버스 외에는 접근하기 힘든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또 공공도서관의 도서 검색서비스의 통합을 강화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은 규모가 작은 것까지 포함하면 74개소이지만 설립요건을 제대로 갖추었거나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제주의 박물관 숫자 역시 인구비로 전국 최대이다. 여기에는 관광지로서 각종 테마 박물관 건립이 일조하고 있다. 예컨대 성박물관, 영화박물관, 차박물관 등이 있다.

박물관을 포함한 전시시설의 난립은 전문인력, 운영의 문제점들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1998년 정부의 '새문화정책'에 의한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이 이에 일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전승과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립박물관의 건립비 30%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왔다.

전문 인력 확보가 부족하다. 학예사가 미비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사립의 경우, 개관할 때만 학예사를 배치하고 그 후에는 학예사가 없어지기도 한다.

관리 운영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관장들이 행정전문가로 이루어져서 운영에 미흡한 점을 보인다. 설사 행정가가 관장을 맡더라도 실제 운영에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립의 경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재정과 전문인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영세 박물관은 수익 악화로 박물관 유지가 힘든 게 대부분이다. 많은 경우 단순히 관광객을 중심으로 여행사와 결탁하여 관람객을 유치하는 실정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가 많다보니 주민들의 학습, 교육, 체험, 꾸준한 참여보다 관광객을 위한 일회적인 흥미 위주의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2) 문화단체

문화단체의 성장에서 주목할 것은 음악분야의 단체수 증가이다. 도내 대학들에 음악 관련학과가 늘어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문화단체의 증가에 반해 문화단체들의 분포에서 정책적 지원이 특정 장르에 편중되어 왔음을 읽을 수 있다. 이 점은 분야별 균형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로 지적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도내 문화단체들의 재정이 열악한 점이 주목된다. 대부분 개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만, 단체에 따라서는 국비, 지방비 등의 행사지원금과 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총괄단체의 경우에 상근직원을 두기도 하지만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도 문제이다. 단체의 물적 토대라고 할 회원들의 회비 등도 잘 건너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전문적 결사체 유형의 단체와 동호회 유형의 단체간에는 운영상의 차이가 있어, 전자에 비해 후자는 거의 전적으로 회원들의 회비에만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후자의 활동은 매우 소규모이고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재정적 취약에도 불구하고 도내 문화단체들은 나름대로 분야별로 여러 활동을 해내고 있다. 대표적인 총괄단체 중 하나인 예총제주도연합회의 활동은 지역 내에서는 비교적 굵직한 문화예술행사로 채워져 있다. 2009년도 행사만 보더라도 5월에 행해진 제주 아트 페스티벌이라든지,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매주 금, 토요일에 이어진 산지천 예술마당, 그리고 제 35회 제주미술대전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가 해당 단체활동의 거의 대부분을 이룬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때문에 이들 민간의 단체들을 통한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그러

나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들의 문화예술활동과 행사가 자체적으로 기획 집행되고 자생력 있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민간수준에서의 재정확충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호회 유형의 단체와 그 구성원들, 그리고 개별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관심을 지닌 일반 도민들을 위해서도 일정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비전문적인 동호회의 층이 두텁고 활성화되어야 전문가적 결사체인 단체들 역시 더욱 전문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전문적 개인 또는 단체의 참여와 공연 및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직·간접적 재정 지원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3) 주민의 문화생활과 문화의식 수준

문화단체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역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데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었다. 관람이든 동호회활동이든 창작활동이든 가장 큰 어려운 두 가지를 꼽으라면, 시간과 비용의 문제였다. 시간과 비용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의 문화수요 욕구는 육지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적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의 경우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비전문가적 동호회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의 경우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만족도가 낮다는 점은 그만큼 욕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람 수준의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창작 및 발표의 의향은 육지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나, 정작 창작 및 발표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었다.

2. 개선 방안

1) 문화예술 향유환경(어메니티)¹⁰⁾ 조성

제주 문화예술 환경은 양적 성장이나 확산에서 질적 발전이나 확충으로 나아가 할 때이다. 이제는 물적 토대(하드웨어)보다 질적 내용(소프트웨어)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질적 발전과 확충을 위해 운영의 전문 인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도서관의 경우에 모든 곳에서 장서를 골고루 갖추는 것이 힘들다면, 도서관 별로 전문 분야를 나누어 장서를 구비할 수도 있다. 문화의집도 동단위로 난립하여 비용을 들이면서도 효율성은 떨어지게 하는 것보다, 인접한 동끼리 통합하여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면 비용대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시설이 과잉하여 재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하드웨어 증가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점이 있다. 운영에 문화예술인의 전문성과 수요자인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면 소프트웨어를 확충할 방안이 나올 것이다.

둘째, 지역적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 옛 시가지 외의 지역, 특히 제주 시 동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으므로 지역별로 시설들을 골고루 배치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성이 떨어져 비용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된다. 이 점은 다음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밀착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관광객이 아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각종 시설을 지역별로 다 갖추

10) 어메니티 amanity 에 대한 적절한 번역어가 아직 통용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향유환경으로 일단 번역을 시도하였으나, 본문에서는 어메니티 그대로 사용하였다.

것이 아니라 기능을 통합한 다기능 시설을 갖추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설도 반드시 새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있는 기존의 시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기존의 리민회관·문화의집·노인회관 등의 기능을 통합하면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아져 소외된 지역이 줄어들 것이다.

넷째, 문화예술 단위(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게 좋다. 문화관련 시설들을 연결망(네트워크)화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그럴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수용자의 이용도 제고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구감소로 폐교가 된 유휴 공간 등을 문화시설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문화예술 향유환경(어메니티)의 조성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어메니티는 자연적 어메니티와 인공적 어메니티로 구분된다. 제주에서 전자는 잘 갖추어져 있고 유리한 조건에 있으나 후자는 그렇지 못하다. 인공적 어메니티로는 박물관·미술관·공연장·공원·제3세계 민속요리점(에스닉 레스토랑) 같은 다양한 문화시설과 문화적 행사(이벤트)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 나아가 주민들의 성격, 다양성, 새로운 주민에 대한 관용성 등도 인공적 어메니티에 포함될 수 있다(장원화, 2009). 이 점에서 제주는 개선의 여지가 더욱 크다. 즉 자연적인 것보다 인공적인 것, 인공적인 것 중에서도 시설과 같은 물질적인 것보다 제주도민들의 자세와 태도가 더 많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어메니티에 따라 개발하면, 관광지가 단순히 외부의 관광객에게만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부의 지역 주민들에게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즉 외부 관광객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도 동시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주민들이 도문화정책의 우선순위로 제주도

민의 수요충족을 우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다. 도 전체가 문화예술 어메니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산재한 문화예술기반 시설들을 어메니티 개념에 따라 단위(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연결망(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 문화예술지원(메세나)¹¹⁾ 운동 활성화

첫째, 행정당국과 기업,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을 잇는 비영리적 매개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중앙에 결성되어 있는 한국메세나협의회, 몇몇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지역메세나협의회와 같은 조직을 도내에 구성하여 메세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행정당국의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제도적 조직적 기반이 없는 지금은 관이 주도하고 민간이 호응해서 참여하는 형태로 조직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조직이 비영리적인 민간의 조직으로 발전하도록 하되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참여 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메세나 관련법 제정을 위한 중앙에서의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도 수준에서도 조례 등을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 내용에는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수준의 금융 및 세제 지원 항목이 필히 들어가야 할 것이다. 민간 기업은 물론 공기업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11) 메세나 Mecenat 는 문화예술지원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이다. 인명에서 유래하기도 하여 번역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운동을 의미할 때 사용되고 있다. 메세나 역시 어메니티처럼 일단 문화예술지원으로 번역하였으나, 본문에서는 메세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3) 문화예술품 유통시장의 조성과 거래 활성화

첫째, 수요자 개인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예술품 거래의 활성화는 문화예술부문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소통의 장애를 제거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에 관해서는 공급보다 수요의 취약성과 그로 인한 악순환이 자주 지적된다. 예컨대 일반인이 미술품을 구입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한 집 한 그림 걸기, 저가의 작은 그림전 등등으로 미술품의 거래를 증진시키려 하지만 도내의 사정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수요자 곧 소비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미술품을 담보로 한 일정액 한도 내의 저리 장기의 금융대출이나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방법이 그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는 다른 문화예술활동에 지출한 비용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각종 공연이나 전시장의 관람료나 입장료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시장을 건인 유지할 중개조직(갤러리, 옥션 등)과 시장경험을 확산시킬 행사(벼룩시장 등의 이벤트)를 장려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문화예술 시장을 이끌고 유지시키기 위한 중개조직과 행사(이벤트) 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역에 기반을 두면서도 지역 외부와도 연계된 중개조직(갤러리나 옥션 등)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한다. 이들은 나름대로 문화예술 부문의 정보의 취합과 생산, 유통을 해줄뿐더러 직접적으로 시장을 형성시켜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일상화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서귀포의 벼룩시장과 유사한 행사(이벤트)와 장소를 제주시에도 개설하여 정책적으로 육성한다. 이는 일상생활 영역에서 문화예술품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여주어 도민들의 문화의식 신장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공공부문에서의 문화예술품 구입과 유통을 위한 조직화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 전남의 남도미술은행, 인천시의 미술은행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 수준의 문화예술품은행을 제도화한다. 우선은 제주도립미술관 등을 창구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4) 문화예술활동 참여유도를 위한 체계적 지원

첫째,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야 한다. 현재 산만하게 전개되고 있는 각급 행정기관과 각 부서별 교육 프로그램들을 조정하고 재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많지 않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이를 위한 종합적 기획과 조정, 관리를 담당할 조직의 구성도 바람직하다. 지역별(읍면동별, 마을별), 세대별, 성별, 학력별, 계층별 등 사회적 범주(social category)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도 추천할 만하다. 사회적 범주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이해와 관심을 염두에 둔 보다 도민친화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비전문적 개인 또는 단체의 참여와 공연 및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직·간접적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현재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전문적 개인과 단체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개인적으로 또는 각종 동호회나 취미 결사체(단체)의 형태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거나 하고자 하는 비전문적인 도민들에 대한 관심이 촉구된다. 이런 관심에서 우선 문화예술분야의 정보를 취합하고 가공, 재생산하여 문화예술활동의 현재적 잠재적 참여자인 도민들에게 유포시키기 위한 행정당국의 특화된 정책과 시행이 요구된다. 비전문적

단체와 개인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각종 공모나 경진 대회 등의 형태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한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5) 문화예술의 섬 표방

실태조사결과를 육지와 비교한 바에 따르면¹²⁾, 제주도민의 문화생활 향유수준과 욕구수준은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문화향수실태조사보고서>의 조사결과표에 따르면, 흔히 문화예술의 도시임을 자처하는 광주나 익산 역시 전국 평균 수준이었다. 세계자연유산의 자연환경과 함께 인위적 환경인 문화예술 어메니티가 조성되고 메세나 운동이 활성화된다면, 문화예술의 섬을 도 정책기조의 한 축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문화예술의 섬을 표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문화기반시설이나 문화활동 참여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 발전이 없이는 도민 문화생활이 진정으로 고양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문화기반시설의 수나 늘리고 규모나 키우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문화예술활동에의 참여도 행사의 횟수나 늘려서는 의미가 없다. 과거와 다른 도민들의 의식수준과 취향, 제주도 자체의 변화된 이미지와 위상에 걸맞은 문화기반시설의 체계적인 배분과 설치, 문화예술활동과 각종 행사의 질적 고양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문화예술의 섬 제주로 거듭나는 날을 희망한다.

12) 조사단계에서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조사와의 비교가 이루어졌으며 <2009 제주도민의 문화의식 및 문화생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항목별 비교가 이루어졌으나, 지면의 한계로 인해 여기에서는 일부만 제시되었다. 육지부와 의 전체적인 비교분석은 다음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김명범·황경수, “메세나 운동의 제주지역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35호, 2009.
- 김영호, “제주특별자치도의 미술관 비전,” (사)제주국제협의회 외 공편, 『제주 전통 문화의 보존과 발전방안』, 오름, 2008.
- 김종길, “지역미술 진흥을 위한 외국 지원제도 사례와 공공미술,” (사)제주문화포럼 정책세미나 발표요지, 2008.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2006.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2008.
- 이상철·김석준·김준표, 『2009 제주도민의 문화의식 및 문화생활 실태조사』, 제주발전연구원, 2009.
- 이승택, “미술품 유통방법에 대한 사례발표,” (사)제주문화포럼 정책세미나 발표요지, 2008.
- 장원화, “엔터테인먼트 도시와 도시관광,” 『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학』, 10권 2호, 2009.
- 정세호, “제주지역 박물관의 현황과 발전방안,” 『제주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방안』.
- 인태정, “한국 문화관광 연구의 현황과 사회학적 시론,”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82호, 200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지』, 제6권 문화·예술, 제주도, 2006.
-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각년도.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스포츠 현황』, 200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 보완용역』, 2009.
-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현황: 단체·시설』, 2003.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제주문화향수실태조사』, 2006.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8 제주문예연감』, 2009.
- 허남춘, “제주문화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31호, 2007.
- 현길언,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of the Cultural Life and Its Degree of Satisfaction in Jeju

Lee, Sang Cheol* · Kim, Suk Joon** · Kim, Jun Pyo***

Jeju island is on UNESCO's World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List. Jeju island is said to have cultural sources fluently and its culture has been studied to be different from that of the main land of Korea. Many researchers have focused on the distinctiveness of traditional culture of Jeju, concerning cultural and social anthropology. Bu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realistic cultural life of residents in Jeju.

How exist the conditions of the cultural infrastructure in Jeju? What cultural organizations are being constructed in Jeju? What status is the cultural life of residents in Jeju? How is the satisfaction degree felt by Jeju people? What policies are to be proposed for the improvement of cultural life in Jeju?

According to our research, the cultural infrastructure of Jeju island had been poor until 1960's but has been grown in the course of modernization and tourist development project especially since 1995 and still is poor for the residents. The cultural organizations have been increased in Jeju for the last decade, though have been also revealed to be mainly the professional associations or federations of organizations.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 Ph. D. Candidate, Lecturer, Department of Soci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cultural organizations in Jeju, futhermore, is investigated to be poor because they have been mainly supported by local government of Jeju. The enjoyment degree of the cultural life is revealed to be a little higher than that of the main land in Korea. The need for the practical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has been appeared to be getting stronger. Due to their need, their satisfaction degree has been showed to be a little lower.

Thus, we propose the following policie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the cultural amenity, the vitalization of mecenat movement, the extension of art market including a secured loan, the systematic support for the practical participations of the residents, and the positive drive forward 'Jeju, the island of culture and art.'

Key Words

Jeju island, cultural infrastructure, cultural organization, status of cultural life, amenity, mecenat, the island of culture and art

교신 : 김준표 690-756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E-mail : salira43@jejunu.ac.kr 전화 : 011-9728-1543)

논문투고일 2010. 06. 23.

심사완료일 2010. 07. 20.

게재확정일 2010. 07. 30.